

「건축물관리법」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

2022. 03. 31.
대한건축사협회

<수정 건의>

-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검토의견

<건축물관리법 시행령>

- 해체계획서 작성(검토)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 (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)
- (사유)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자를 분리하지 않고, 작성자 또는 검토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관리자와 형성된 유착관계로 인해 담합 및 덤핑 수주의 우려가 있으며,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부실 공사가 야기될 수 있음
- 이는, 건축물관리법 제정시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남
- (법안수정안)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2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<신 설>	제2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해체에 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.	제2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<삭 제>

<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>

1)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 시 감리자 변경 가능 규정 삭제

(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)

- (사유)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는 법에서 정한 바,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교체사유가 될 수 없고 이에, 무분별한 감리자 교체 요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

※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사유는 「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2항」에서 정하고 있음

- 해체공사 감리 체결 시 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제한없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할 경우,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실감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※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시 운영기준 등에서 2명의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견적을 비교하고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

○ (법안수정안)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13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<신 설>	제1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감리계약의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를 준용한다.	제12조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) ③ <삭 제>

2) 해체공사 상주감리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

(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, 제6항)

- (사유) 상주감리대가기준의 적용 여부를 선택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며, 대가기준 적용 여부로 인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

